

남 이롭게 하면 내가 편해요

승암 스님의 가르침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울 사람은 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한결같이 묻는 것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해줍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좋아하는 것을 못해줄망정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말라 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원망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하나는 남이 잘못하는 것 무조건 용서해주시시오.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다보면 밤잠을 잘 못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드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잘못한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괴롭고, 병은 나한테 생기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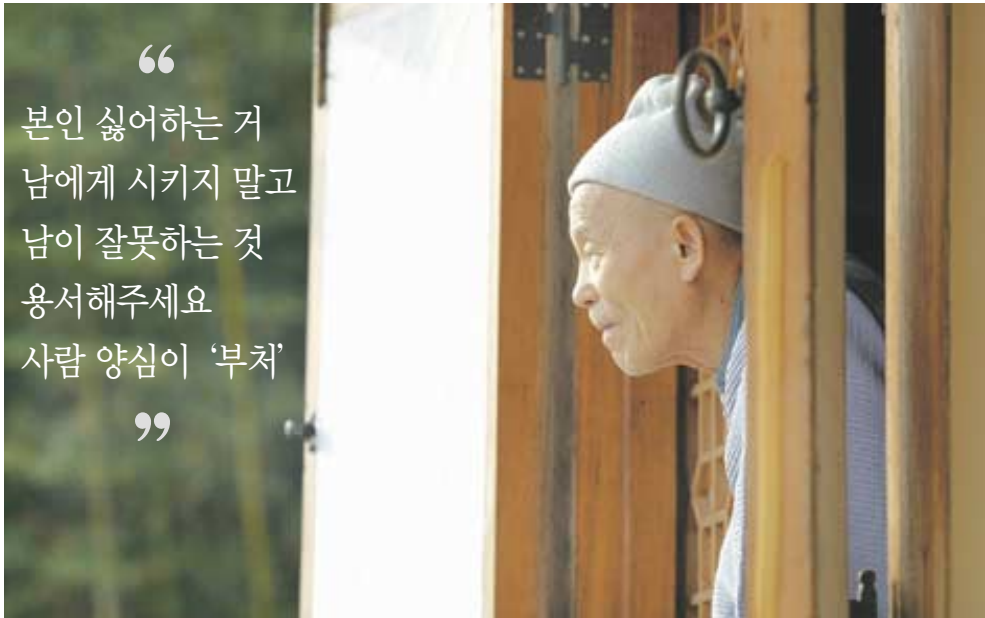
그렇게 말을 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큰소리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남을 용서하는데 돈이 됩니까? 노동력이 됩니까? 뭐가 힘이 들어 어렵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는 곧 한사람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으면 안 됩니다.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अच्छ게 품속인데, 집착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너는 전부 잘하지만 했느냐고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사람마다 부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 바로 부처입니다. 양심이 있으니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고, 안에 있는 부처님이 알아서 잘못을 꾸짖고, 잘해야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선지식만 스승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스승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하고 깨우치게 해주니 더 큰 스승이지요.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면 운동 지속이지만 좋은 것인데 미워하는 것인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치가 극락입니다. 내가 극락에 가고 싶으면 극락에 가도록 마음을 써서 부처님한테 애걸복걸 한다고 극락에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는데 세상은 왜 이리 갈등과 반목이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먹는다고 얘기를 해도 배부르지 않듯,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자주 말해주지 않



“본인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남이 잘못하는 것 용서해주세요. 사람 양심이 ‘부처’”

으면 서운해 하고 그러지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가식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 무조건 베푸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거짓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 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존경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 배우자를 존경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64억이라면 굉장한 경쟁을 뚫고 부부가 된 겁니다. 국회의원도 되는 일보다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남녀로 태어나 둘이 부부가 될 확률이 이렇게 귀한데 어떻게 존경하

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아이한테 맞게 해줘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 욕구불만을 채우는 도구로 자식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마음은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우주에서 제일가는 '스타'입니다. 요즘 스타 보러 간다고 소리 질러가며 야단들인데 그건 자기 속에 있는 사리 찾을 생각을 안하고 사방으로 남의 사리 보러 다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세상사람 전부가 스타입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하면 스타가 됩니다. 거미, 지네, 두 발 짐승, 네 발 짐승, 땅 속, 물 속, 하늘에 사는 짐승도 많은데 사람 몸 받아서 온 것만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 몸 받았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요즘 헬빙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진정한 헬빙은 지금 이 세상 잘 살아서 팔자 운명을 뛰어넘어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팔자다 하고 가만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불교는 제 성품을 봐서 부처 이루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 정신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 사는데 바르게 잘 살라고 나온 겁니다. 종교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맹신과 광신이 아닌 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행하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제의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이라는 간단한 말속에 불법의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온화한 말과 밝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십시오. 나는 당신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을 이롭게 하려는 원을 세우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남을 위하는 일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4>



논쟁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첫째, 논쟁은 구술(口述)로 해야 한다. 둘째, 논쟁의 내용을 양측에서 기록한 다음, 기록자는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상대방에게 그 기록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대방은 인용하는 책과 논문의 명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중략) 다섯째, 첫 시간은 기독교 측에 부여하고, 그 다음 시간은 불교 측에 부여해서 사용할 것, 그 다음 시간은 불교 측에 부여하고, 불교 측은 불교의 허위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 필히 변론한 후 기독교의 허위성에 대해 반론해야 한다. (중략) 여덟째, 양측 어느 쪽도 논쟁 중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아홉째, 논쟁 중 논쟁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정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청중들이 평온하고 냉정을 기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한다.

<과이나주 대 논쟁> (석우진 편역, 운주사)에서 인용함

종교간 '대화' '화해'의 목소리 과연 논쟁 없이 얼마나 진실할까 논쟁있어야 상대 알려 가슴 열 것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8월 하순의 스리랑카. 서해안에 자리 잡은 고요한 섬마을 파이나두리에 남대없이 1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중들의 앞자리에는 스리랑카의 스님들과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럽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교와 기독교가 한판 붙어 보자고 도전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인 1873년 당시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지배권을 물려받고서 모든 분야에서 수탈이 자행되었는데 특히나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를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로 규정짓고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교인 불교에 대해서도 엄청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스님들은 분개하였고 결국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논쟁이 벌어진 뒤 마지막으로 1873년 8월 26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다시 한 번 논쟁은 벌어졌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미신을 숭배하는 무리들'에 비해 자신만만 한 강대국 목사들의 기세는 말할 것도 없이 스님들의 패배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두 종교의 대표자들은 위의 원칙에 의거해 논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을 조목조목 따지되 그것을 글로 적어

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불교와 기독교 양측은 서로 자기들의 승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 논쟁의 승리는 불교 측의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쟁의 여파가 흥미롭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교를 알아보는 운동이 일어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미국인 육군대령 윌코트는 아예 불교에 귀의하고 스리랑카로 들어와서 매우 활발한 불교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35살의 청년 싯타르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초전법륜 이후 향한 곳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에서 가장 신앙이 두터웠던 바라문 가집 삼형제의 처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색을 훌쩍 넘겨 오니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거

느린 제자들보다 '새파란 청년' 붓다가 상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감히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들의 교리와 종교의례에 대한 오류와 맹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가집 삼형제는 청년 붓다에게 귀의하였고 마가다국의 암비사랴왕 또한 부처님의 위력을 절감하고 독실한 제자가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요즘 부쩍 '대화'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급적 논쟁은 피하라고 합니다. 과연 논쟁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얼마나 진실한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있어야만 상대 종교를 알리고 머리와 가슴을 열 것이고 양식 있는 종교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망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무슬림들의 맹비난을 받자 일종의 화해의 몸짓인 듯 인구 99%가 무슬림인 터키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는 교황의 몸짓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이 굵지만은 않습니다. 원탁토론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교황이 흔쾌히 승낙했으면 좋을 텐데 싶습니다.

■ 이미명(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종합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서울 (02)585-1141

금강장사

200여종의 출력장치 지원 (107인치 액정모니터, 42인치 동표형식, 57인치 휘어형식 등) 나일론 렌즈 발음 가능 내장형 막강한 생체인식 기능 지원 국내의 모든 우편을 일시에 지원하는 우편발송 기능 지원 신도들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원, 단음, 지원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지원 영가위탁을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지원 그 외 영정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지원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전송기능(일제조건에 따라 메시지 전송)

우리사찰 홈페이지 투투컴퓨터에서 만드세요. 멀티미디어와 사찰정보 및 인문, 연등, 회원관리등의 웹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멀티미디어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리며, 제작후에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상기 샘플은 축소된 형식이며 미확에 업서, 신도를 등 여러형태의 연속출력과 A4용지들이 있습니다.

국내최초의 전문역학프로그램 **사주대전** 국내 최고, 최초의 웹프로그램 四柱大典 투투컴퓨터에서 만나보십시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야간)적외선카메라 4대 = 250만원, 카메라 1대 추가시 + 25만원 작동점검, 케이블보수, 기기청소 등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CCTV

3대 만족 품질, 가격, 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보안은 예방"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현도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